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말씀 / 창세기 46장 - 48장

요절 / 창세기 47: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흉년의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바로를 접견할 때 그를 축복하며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죽음을 앞두고는 열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은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강한 야곱을 훈련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축복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사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목자 하나님을 목상하며 현재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46:1-47:12)

45장 후반부에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22년전에 죽은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더구나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있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애굽제 최고급 롤스로이드 세단 마차를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옛날 야곱이었으면 즉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했고, 아버지 이삭도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은 단지 기근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는 인큐베이터같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을 파송하셨고, 총리가 되어 보호막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습니다. 8-27절까지 명단이 쪽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21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그 자손까지 키우는데 215년이 걸렸습니다. 215년간 키운 수가 제자양성의 수가 70명이면 너무나 작은 수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며 인구가 200만명으로 늘어나게 하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신명기 10: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이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키우시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자 그 후손들은 셀 수 없을만큼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한 사람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제자양성의 기초를 놓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굳게 서고 제자양성의 기초가 튼튼하게 놓이면 그 한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제자양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키우시는데 3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때까지도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들에게 세계의 운명을 맡겨도 될지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장해서 3천명, 5천명을 회개시키는 큰 목자요, 사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7부가 40-50명대이고 수양회때는 70명도 참석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제자양성의 기초를 놓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을 귀히 여기고 계속해서 제자양성 기초를 놓기에 계속 힘쓴다면 반드시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고센 땅에서 아들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동안 울었습니다. “요셉아, 네가 내 아들 요셉 맞니. 내가 네 얼굴을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7: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결국 바로의 배려로 요셉은 형제들이 목축업을 하며 정착하도록 고센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고센땅은 초지가 좋아서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합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목축업은 멸시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고센땅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과 문명을 동경하여 동화되기가 쉬웠습니다. 1,2세대는 그런대로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최선의 것을 좋아하는 신세대 후손들은 쉽게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센땅은 애굽의 입구에 있어서 430년후 출애굽할 때 빨리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너무 깊숙히 들어오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걸림돌이 많았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탈출할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200만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 같지 않습니까? 007작전 같기도 합니다. 이런 작전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역사를 볼 때 강대국이나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십니다. 강대국이나 미국, 애굽이나 바로나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속역사를 중심으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역사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특히 구속역사에 쓰임받고자 소원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30세의 히브리 인 야곱이 대 애굽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한편으론 초라하고 기가 죽기 쉽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분명한 identity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이시여, 바로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애굽 온 땅을 잘 통치 하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늘의 영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identity를 가지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전달 하는 복의 통로다 라는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하러 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3:6)”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바로와 같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때문에 야곱과 같이 당당하게 복을 빌어 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 이라면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은 영생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자 영원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는 항상 햇빛이 그 관을 비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영원 하니까 태양의 아들로서 그 기운을 받아서 영원토록 썩지 않는 미이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모양의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죽음의 사자가 오지 못하게 하였

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들의 몸부림일 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런 바로에게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바로 당신이 지금은 권좌에 앉아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일수 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은 소풍 나온 나그네 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소풍갈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러나 그 재밌는 소풍도 끝나면 가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하루 소풍나온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하늘을 기억하고 살리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들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오묘한 목자님이 방글라데시로 떠나셨습니다. 이땅에 소풍을 나오셨는데 그 안에서 또 2년간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전염병도 심한 후진국에서 봉사하며 한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70이 다 되가는 나이에 가시는 것은 나그네 인생 철학이요, 하늘나라 산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뭐든지 잘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방글라데시에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다가 안전하게 소풍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또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야곱을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공부하기도 험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짧은 두 말씀이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히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원고도 없이 그러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산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47:13-31)

47:13절을 봅시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온 땅에 흉년이 계속되어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때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돈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사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들을 몰고 와서 양식을 사졌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흉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토지문서를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졌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까지 양식을 사고자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셉은 사람들에게 종자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뒤에 오분의 일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분의 사는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소작농들은 수확의 50%는 주인에게 바치고, 자신은 50%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수 천 년 전에 소산의 80%를 자신이 갖고, 20%만 주인에게 바치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나아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25)” 그들은 은혜로운 토지법 때문에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은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요셉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다른 민족들은 기근 때문에 다 곤란을 겪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오히려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예비하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고센이라는 딱맞는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오히려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먹고 살고 생육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님을 봅니다.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생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육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III. 후손들을 축복하는 야곱(48장)

48: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난 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장남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남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남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야곱은 자신이 평생에 깨달은 진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신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15,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

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길러 주셨다”는 말씀을 “God has been my shepherd”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감당해 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물과 단점이 많은 자였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욕심이 많아서 좀처럼 변화되기 힘든 자였습니다. 창세기 31장 후반부에 보면 밧단아람을 도망쳐 나온 후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지난 20년 세월을 회고합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가, 뼈빠지게 일했는가 구구절절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내가” “내가” “I”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자기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고생해서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 주셨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환난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엘에서 돌베개 배고 잘 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28:12). 밧단아람에서 몰래 빠져 나올 때 라반에게 붙잡혔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기쁘게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약탈을 자행함으로 무서운 보복을 당할 뻔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셔서 감히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35:5).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오히려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봐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도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을 길러주신 목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날 이때까지 길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일뿐입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길러 주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 자신

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갈 것을 소망했습니다(히11:9,16). 그래서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47:29,30).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민족을 이루시고자 요셉을 총리로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고센땅을 예비하심으로 온 세상이 기근인 가운데에서 오히려 생육,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자시요, 이를 위해 세상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말년을 살펴보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과 욕심을 부리다가 말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년에 나그네 철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길러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뺏고 쟁취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베풀고 축복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풍은 떨어지기 직전에 아름답고, 해는 석양이 아름답다” 마치 야곱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그의 인생 초반부는 질풍노도와 같았지만 후반부는 가을햇살처럼 따스롭고 온유합니다. 잘 익은 홍시와 같이 부드럽고 은혜가 넘칩니다.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명품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